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9월 29일(금)
(음력 8월 10일)

Пятница
29 сентября 2017 г.
№ 38(11675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1일은 러시아 노인들의 날이다.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모습.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주민, 시리아에서 전사한 왈레리 아사포브 중장 추념

지난 25일 19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예(슬라와)광장에서 시리아에서 전사한 아사포브 왈레리 중장을 추념하는 집회가 소집되었다. 왈레리 아사포브는 2007년에 쿠릴열도에 있는 극동군구 제18 기관총 포병사단 사령관으로, 다음은 제68 부대(사할린 지역) 사령관으로 활약했다. 그는 군생활 은퇴 후 사할린에 남을 생각이었으나 시리아에서 군참사관 담당이었던 그는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 싸웠다. 그러나 시리아의 데이르 예즈 조르에서 IS무장군으로부터 총을 맞고 전사했다.

이날 "그는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거룩한 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그는 사할린 군 청년들의 교육 사령관의 업무에서도 무거운 역할을 해내었다. 우리는 그가 자랑스럽다. 왈레리 아사포브에 대한 추억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고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 주지사가 추념사를 전하고, 안드레이 스펜코노프 제68부대 사령관, 찌혼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주교가 추념사를 올렸다.

<전후 사할린: 교육, 문화>전시회 열려

9월 29일(금) 17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주 설립 70주년 기념 <전후 사할린: 교육, 문화>기획 전시회의 막을 열었다. 전시에는 사할린주 국립역사고문서보관소의 소장 문서, 사진, 사할린주 미술관 소장의 1950-1960년대를 반영하는 미술작품, 주향토박물관, 포로나이스크박물관 등의 자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훗카이도 주민들의 개인 소장 자료들 등이 출품되었다. 전시에는 종전 이후 사할린에서 운영되었던 러시아, 일본, 조선 학교들의 복구와 극동전선에 주민관리국 수장이었던 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 크류코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쿠릴에 러시아학교를 설립하게 된 경위도 소개된다.

박 블라지미르, 네벨스크시장 직에서 사임

네벨스크 박 블라지미르 시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월요일부터 휴가를 낸 네벨스크시장은 10월 1일부터 시장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본사 기자에게 알렸다. 최근에 우수 지방자치체로 인정을 받은 네벨스크구역, 그리고 우수 지방 지도자로도 인정을 받던 박 블라지미르 시장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인정받았을 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표명했다. 12년 동안 네벨스크 구역을 이끌어난 박 시장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은 밝히지 않았으나 확신이 든 이후 발표하겠다고만 전했다.

사할린주두마 의장으로 안드레이 하포츠킨 선출

지난 25일(월) 제7기 사할린주 두마에서 첫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워토리아 체르카소와 위원장이 제7기 두마 의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로 출발하는 의원들에게 위원장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의 축사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예지나야 러시아>당파(교섭단체) 의원은 21명으로 구성되고 대표로는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부대표로는 나탈리아 코르슈노와가 되었다.

3명으로 구성된 러시아연방 공산당 당파 대표로 유리 위골로브, 부대표로는 나탈리아 즈다카에와가 되었고, 2명으로 구성된 자유민주당의 당파 대표는 드미트리 플레에르가 되었다.

두마 의장 선출에서는 다수가 결(25명중 22명 찬표)로 안드레이 하포츠킨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으로는 알렉산드르 이와쇼브가 선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주두마 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오후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주두마에는 5개 위원회가 있다. 사회정책위원회, 예산·세금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 스포츠·관광·청소년정책위원회와 국가건설·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위원회다.

사회정책위원장은 위탈리

고밀렙스키가 계속하도록 하고 그의 부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프를 선출, 예산·세금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나탈리아 자하르추크, 부위원장은 이고리 오시펜코, 경제개발 위원회는 아나톨리 코츠넵 사업가가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유리 위골로브, 국가건설·규정 및 지방자치체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나탈리아 코르슈노와, 부위원장은 드미트리 플레에르가 선출되었고 스포츠·관광·청소년정책위원회는 올레그 사이토브가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옴게니 로틴이 선출되었다.

두마 의원의 봉급 배당으로는 6기 사할린주두마 결정으로는 7기부터 의원 28명 중 12명만이 월급을 받는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사할린두마 지도부가 12명이 봉급을 받게 되었다.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안드레이 하포츠킨은 "이번 주두마는 젊은이들이 많은 강력한 주두마다. 활동의 주요 규범은 언론, 사회 활동가, 일반인들을 위한 개방에 있다. 두마의 사회연결망은 더욱 활동적이 될 것이라 본다. 우리의 기본 방침은 사할린에 청년들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낡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와 교육의 질적 향상, 주민들을 위해 사할린에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콘퍼런스 개최

9월 27일-29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17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콘퍼런스가 개최되는데 이에 세계 각국의 전문가 600여 명이 참가했다. 콘퍼런스는 <아담 스미스 연구소>와 사할린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통적으로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가 러시아 에너지전략에 대한 기초 세션을 열었다. 러시아연방정부, 국가두마, 상공회의소, '가스프롬'과 '셸'의 핵심인사들의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할린-1, 2, 3>프로젝트 시찰과 오호츠크해 산지 가공 전망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액화천연가스 글로벌 시장 발전상황에 대한 전략적 논의, 사할린 프로젝트 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영국 워릭 대학 경영학부의 마이클 브래드쇼 교수가 진행했다. 대회 일환의 교육활동으로는 오스트렐리아에서 온 자넷 로버츠 전문가가 석유·가스 프로젝트 세션에서 '공학 기술-조달-건설' 계약으로서 작업의 특수성에 대한 활동교실을 진행했다. 이 계약은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범주 내에서 문제에 더욱 용이한 혁신적 해결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그림 전시회와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장차분 할머니는 자그만한 키와 고운 외모에 인상이 펴 좋으시다.

나는 그 어르신을 보면 왠지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

필자는 장 할머니를 여러 행사에서 보았고 꼭 한번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이번에 노인정에서 노시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더욱더 확실해졌다.

약속한 시간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 파란 지붕의 하얀 집이 바로 보였다. 집에는 할머니와 둘째 아들 유라가 있었다.

할머니는 1934년에 태생이시고 고향은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면이라고 했다 장 할머니의 어머니는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품앗못하고 고단한 시집살이를 하셨다 한다. 장 할머니는 6남매(1남5녀)중 막내였다. 아버지는 한때 집을 나가 몇 년간이나 무소식이어서 아버지가 살아나 계시는지 궁금해 하시던 어머니는 당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편지 한 통도 제대로 쓸 수 없어 그저 동네 있는 모든 점집을 찾아가셨다고 했다. 아버지 생사라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지식에 있는 분이셨다고 한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글을 깨우치고 배우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글을 써주고 편지도 써주고 집을 떠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했지만 사실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공부시키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다고 한다.

막내 딸과 셋째 딸 외에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시어머니의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까지 배웅하고 나서 장 할머니의 어머니는 어느 하루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나도 아들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오빠가 일본 가서 돈벌이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한테 돈을 부쳤습니다."라고 장 할머니는 당

10월1일은 노인의 날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시를 회상하며 "오빠가 결혼하고 또 우리한테도 돈을 보내고 있으니 엄마가 '한 솔의 밥을 같이 먹으면 절약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 일본으로 가게 되었지요."라며 장 할머니가 얘기했다. 일본에 가서 장 할머니는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너무도 살기가 어려워 콩밥만 먹었다는 것이다.

장 할머니는 어릴 적 일은 잘 기억하지만 중간 일을 때로는 까먹고 부모님의 생신날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해마다 생일상을 차려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만 부모의 출생년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날 오빠 집에서 사시던 어머니께서는 '하늘 끝이 있는 땅'-가라후토(사할린)-에 시집간 큰 딸을 너무 보고싶어 하시며 사할린에 가서 '한 달만 있다 오자'라는 제안을 하셔서 장 할머니와 셋째와 장 할머니의 어머니는 이때 사할린을 찾아가셨다 하신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다니시던 아버지도 어떻게 해서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사할린으로 들어 오셨다고 했다. 사할린에서 장 할머니의 가족은 장 할머니의 언니가 사는 마카로브(그 당시 시리투루)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딱 한 달만 사할린에서 보낸다는 것이 평생이 되었다

고 하셨다. 전쟁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할린 동포의 운명.

처음엔 언니 집에서 나중에는 개인 집을 얻어서 가족은 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10세였던 장 할머니는 일본학교를 다니고 나중에는 조선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조선 나이 17세, 만 16세에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시집을 보낸다고 하니 어찌겠소?"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는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하셨어요. 저의 엄마는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러시아 말로 "따까야 호로샤야"라며 장 할머니는 여러 번 말하셨다.

신랑은 신부보다 10살 위였다고 한다.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온 남편 황칠용씨도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장 할머니 앞에 서자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결혼은 주위 사람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지고 부부는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할머니는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막내딸로서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며 끝까지 모셨다고 했다. 남편 황칠용 씨는 홀로 바라크에서 살다가 테릴사위로 장 할머니 댁에 들어와 살았다고 했다.

장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키도 크고 힘이 세었고 정년퇴직까지 탄광에서 일하셨다 한다. 결혼 당시 그는 조선작업반의 단장으로 일하며 말수도 적고 성품도 좋은 분이었던단다. 슬하에는 자녀 6명 아들 셋, 딸 셋이 태어났다. 할머니는 웃으며 "사람들은 세 명(딸 셋)은 주고(시집 보내는 것) 세 명(며느리)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도 모시고 학부모로서 학교를 찾아가고 직장 출근에다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큰 식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이 채소를 시장에 나가 판매까지하는 상황에서는 부지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반가공제품 (고기 썰기) 배분하는 일,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탄광업체에서 청소 하기도 했다. 일은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했다 하신다. 장 할머니는 자신의 성질이 그렇다 하신다. 바느질, 뜨개질도 잘했고 크로세 뜨개질도 즐기셨다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근성을 갖고 해내셨다고 한다.

남편은 첫 뇌졸중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났지만 3년 동안은 막대기 없이 움직이지 못하다가 거의 완쾌되었다 싶었는데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더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가족과 재회의 날도 못내 이루지 못한 채 1987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1990년대 초가 되어서 장 할머니는 남편의 친척과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 칠용이를 너무나 보고싶어 하다가 마침내 정신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장 할머니는 "남편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남편은 항상 장 할머니 곁에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가 있어 부러워하셨다고 한다. 강제징용으로 외로이 나와 계시는 할 할아버지는 무척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했다. 가끔은 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 엄마 생각에 우셨다고 한다. 사실 창문을 쳐다보며 한국과 일본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장 할머니의 마음도 너무 아

프셨다고 한다.

남편과 친정어머니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는 장차분 할머니는 영주귀국할 생각을 포기하셨다고 하신다. 한번은 "나도 영주귀국할 까?" 하니 아이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맞서지 못했다고 했다.

장 할머니는 지난 일들을 조용하고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분조분 말씀을 하셨다.

슬하의 자녀 여섯 모두가 애를 먹이지 않고 잘 자라 준 것에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다. 아들 셋 다 대학을 나와 건축설계를 전공했고 딸들도 좋은 교육 (경제학과, 간호사 등)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의사 사위와 의사 며느리를 얻게 된 것도 자랑스러워 하셨다. 손자들도 많이 커서 증손자 까지 선사했다고 한다.

생신 80주년 생신 때는 자녀, 손자녀, 8개월 된 증손자 까지 모두 같이 있어 무척 행복했다고 하셨다.

지금은 연세가 들어 건강상 심장도 아프고, 한쪽 눈은 수술하고 다른 눈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다 자주 맥도 빠지지만 마음은 아직 젊을 때 그대로라 하신다. 노래도 좋아하시고 춤추는 것도 즐기시는 장 할머니는 현재 약해지는 몸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가장 서운한 것 같다 하신다. 그래서 필자에게 "나는 다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란 말을 하셨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 자녀 · 손자녀의 사랑, 주위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아닐까.

고달픈 삶을 이어 살아온 우리 동포어르신들이 무병장수하시길 바라고 기도한다.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제 6회 유치원생 가족 축구 리그 챔피언대회 전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6회 유치원 가족 축구 리그 시합이 시작되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가을맞이 대회에는 10팀이 참가하고 가족 축구 시합 방식에 주요한 변경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 기획의 제작자인 안드레이 하포츠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각 시합은 두 타임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반전은 전과 같이 한 팀에 여아 3명과 남아 3명으로 구성된 팀들이 경기를 펼치고, 후반전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출전하여 오직 그 팀의 여성대표만이 골 넣을 권리가 주어진다.

시합은 매주 토요일에 시공원 <코스모스>경기장의 새로운 미니축구장에서 열린다고 조직위원들은 두 번째 변경사항을 전했다. 골문의 크기도 2x5 미터까지 확대되었고 이외에도 오는 가을철부터 <사할린>축구 클럽의 지원으로 유치원 가족 리그의 모든 시합에는 주 청소년 스포츠심판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3명으로 구성된 심판팀이 심판으로 나서게 된다.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VI чемпионат Детсадовской семейной лиг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и игры VI чемпионата Детсадовской семейной лиг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в новом сезоне в турнире участвуют десять команд, а сам формат футбольных семей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етерпел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 словам автора проекта Андрея Хапочкина, с этого года каждый матч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два тайма. При этом первый отрезок игры останется прежним (в поле от каждой команды играют малыши (три девочки и три мальчика), то второй тайм объединит и мам и пап, причём право забивать имеют право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Вторым изменением, которое подготов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участникам, стало то, что игры стали проводиться по субботам на новой минифутбольной площадке стадиона «Космос»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а размер ворот увеличился до 2x5 метров. Более того, с этого сезо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ГАУ «ФК «Сахалин» все игры лиги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воспитанники областной школы юного арбитра: каждый матч судит бригада арбитров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사할린 섬> 출판물 핫카이드 도서전람회에 전시

핫카이드 문학박물관에서 '2017 <사할린 섬> - 안톤 체호브의 유산'이란 전시회가 열렸다.

샤프로 도서전람회의 개최에 <사할린 섬>책 박물관 관도 참가하게 되었다.

전람회에 소개된 주요 출판물은 일본에서 발행되거나 다수 재출판되었던 유배지로서 사할린에 대한 작가들의 유명한 기행문들이다. 안톤 체호브와 사할린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된 <체호브의 낭독법> 학술 논문집, <문학의 안내서, 또는 체호브의 사할린 거리들로, 뿐만 아니라...>선집 등 안톤 체호브와 사할린

박물관 활동과 관련 자료는 일본 측이 제작한 출판물을 추가해 전시했다.

전시회에 수반된 전문서적은 슬라브 학자인 쿠도 마사히로와 오카다 카드주야의 번역으로 출판된 책들로 워토리아 추지노와 아나스타시야 스페르넨코의 섬지역 체호브 연구가들의 작품과, 문학가인 엘레나 이콘니코와의 연구자료, 니콜라이 타라소브의 시, 사할린에서 체호브의 유산을 보존하고 대중화한 조부와 부친의 활동에 대한 테무리 미로마노브 지리학자의 이야기가 번역출판되어 전시되었다. 삽화 중에는 체호브 책박물관 직원인 세르게이 쿠조보브가 촬영한 현대의 사할린 사진들이 소개되었다.

올 5월에는 사할린과 핫카이드 박물관 간 협력에 따른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사할린 섬> 아.페. 체호브 문학예술박물관 관장 대행 옴게니아 피르소와 핫카이드 문학재단 쿠도 마사히로는 문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발전시켜갈 것을 협약했다. 이번 도서전람회에 참가하는 기관활동의 진흥에 첫걸음이 되었다.

핫카이드 문학박물관 전시회의 일환으로 핫카이드 주민들에게 체호브 책과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만남이 이뤄진다. 10월에 있을 이 만남에는 <사할린 섬>책 박물관 대표단이 참가할 것이라고 섬 박물관 홍보실이 전했다.

Издания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тали экспонатами выставки на Хоккайдо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музее Хоккайдо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2017 – наследие Антона Чехов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организации экспозиции в Саппоро участвовал и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8면에 계속)

동포생활

시한인회 마당에서 즐거운 하루

해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는 노인정 어르신들을 위해 들놀이를 준비한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부탁으로 들놀이행사를 노인정 마당에서 하기로 했다.

지난 23일(토)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들놀이를 할 겸, 여름방학 마감을 할 겸, 노인정의 새 시즌을 시작할 겸 추석도 앞두고 즐거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립종환)가 주최하고 <소망>사할린어린이장작협의회(회장 김춘경)와 사할린주 한인여성회(회장 김웨철)가 협조했다.

이날 시한인회 립종환 회장은 간단히 본 단체가 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할머니들이 건강이 지내시고 앞으로도 한 달에 두 번 노인정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바란다고 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도 환영하며 선물로 떡을 장만했다.

이날 날씨도 화창한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해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무용과 노래가 준비되었



고 <무궁화>할머니 중창단(담당 김춘경)과 <아리랑>무용팀(담당 박영자)의 출연은 행사에 참가한 모두의 기분을 흥겹게 해주었다. 또한 김경호, 박병식 동포가수들의 노래에 모두 큰 환호를 보내며 계속 이어지는 가수들의 노래에 흥겨워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춤을 추었다.

이날 시한인회와 주여성회 여성들은 맛있는 밤상을 준비했다.

한편 10월 1일은 노인의 날이라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었다. (본사기자)

(사진: 안영수)



한글과컴퓨터, 한글 서체 다양화 앞장... 한글날 비전선포

한글과컴퓨터[030520]가 한글 서체 다양화와 한글 사용 확산에 나선다.

한컴은 다음달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7 한글문화큰잔치'에서 글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9일은 한글날이자 한컴 설립 기념일이다.

한컴은 이날 한컴오피스 플랫폼을 통해 한글 서체를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컴은 각 지자체, 기관, 단체, 폰트개발사와 함께 한글 서체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한글의 탄생부터 미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한글 대중화에 기여한 전주시 완판본, 한글의 기계화에 앞장선 공병우 박사의 '세벌타자기'가 전시된다.

또 한글 창제 원리 그대로 조합형 문자코드를 사용한 최초의 워드프로세서 'ㅎ·ㄴ글 1.0'에서부터 한컴오피스 최신 제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전 세계 한글을 배우는 16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한컴오피스가 기증돼 쓰이는 모습, 한국어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통번역 서비스와 통역 로봇 등 한글의 미래도 확인할 수 있다.

한컴은 이날 한컴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 선착순 1천500명에게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반의 자동통번역 단말기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 오프라인'을 증정한다.

(서울=연합뉴스)

2017 한·러 지방정부 경제협력 포럼 개최
한러 지방정부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주제

강원도는 대러시아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2017 한·러 지방정부 경제협력 포럼'을 21일 오후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러 지방정부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이라는 주제로 '2017 GTI 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연해주정부 경제사회개발국 부국장 꾸즈네조바 엘레나 아노톨리예브나, 알타이주정부 국제교류·관광·휴양국 국제협력과장 보론코바 안나 세르게예브나, 사할린국립대학교 도경식 교수 등이 참가하며 강원도를 대표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원순 교수와 동해시 '북방물류연구 지원센터'강달원 박사 등이 참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그 동안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등 여러나라의 지방정부 간 협의회를 통해 러시아와 교류하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강원도와 러시아 내의 지방정부들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한러 양 국가 간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각종 상호 투자 개발사업 및 무역활성화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푸틴대통령 취임이래, 기존의 유럽 위주의 국가운영 전략에서 극동러시아 지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2012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는 한편 '신동방정책'을 발표하여 극동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15년에는 '블라디보스톡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데서

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5년 이래, 푸틴 대통령 및 세계의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동방포럼'도 매년 극동지역의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향후, 중국 및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북방경제를 국내 지방정부 중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가 선점하기 위해 세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지역 지방정부들과의 경제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됐다.

도는 러시아 극동개발의 핵심적인 항만들인 블라디보스톡항, 보스토치니항, 자루비노항 등 다수 항구와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동해항을 통해 대러 무역을, 속초항을 통해 관광크루즈 산업을, 삼척호산항을 통해 한러 에너지협력을 가속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중개무역의 기회를 확보하고, 한·러 지방정부 간에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번 포럼이 한·러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의 발판을 확고히 하고, 지난 6일 한러 정상회담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지방 차원의 협력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회담 하루 전의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양국 간 '지방협력 포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이엔티뉴스/홍돈기 기자]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전 세계 한인사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가 26(화)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막됐다.

9월 29일(금)까지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73개국 400여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주최 환영만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환영만찬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기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 사회가 모국과 동고동락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계 각국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로 활동해주시길 한인회장님들과 재외동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모국 방문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어서 대회공동의장인 오공태 제일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400여명의 한인회장과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대표해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첫 날의 공식행사는 마무리 됐다.

둘째 날인 27일(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는 50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훈포상 시상이 진행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재외동포 대표자 13명에게 홍보대사 배지를 전달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배지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정부 정책 및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사흘째인 28(목)일에는 ▲지역별 현안토론 ▲주요정당 정책포럼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본격적인 회의와 강연이 진행돼 전 세계 곳곳의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0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지역별 현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동포 사회의 기여 방안과 함께 재중 동포 육성 방안, 한인 동포 정치적 역량 및 향상, 한인 차세대 간 교류 협력 등 지역별 현안에 따른 한인회장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주요 정당 정책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각 주요 정당별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한인사회의 모범적 사례 소개하고 각 한인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29일(금)에는 지역별로 논의된 현안 발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뜻을 모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차기 대회 공동의장 2명을 추인한다. 이어지는 폐회식에서는 공로패 수여와 한인회장들이 조성한 장학기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재외동포재단)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праздник Чхусок корейцы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в среднем 8,4 дня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осеннего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ж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10 дней подряд - с 30 сентября по 9 октября. Работаящие граждане в среднем будут отдыхать 8,4 дня, потратив в праздник 510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50 долларов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26 сентября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среди 858 человек.



Большая часть респондентов - 33,4% -намерены потратить в выходные от 260 до 490 долларов. 21,4% указали сумму до 615 долларов, 17,2% - более тысячи долларов. 45,9% респондентов говорят, что самые большие расходы пойдут на подарки родителям и членам семьи. 20,2% потратят максимум денег на путешествия, 11,5% - на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Сотрудники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в среднем 9,7 дня, госучреждений - 9,6 дня,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8,1 дня.

(KBS World)

VII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емия имени Пак Кён Ли будет вручена англи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Антони Сьюзен Байетт

VII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емия имен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Пак Кён Ли будет вручена англи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 Антони Сьюзен Байет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четверг в культурном фонде «Тхочжи». Причину выбора Антони Сьюзен Байетт председатель жюри Ким У Чхан объяснил тем, что гона отражает в сво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широкие факторы, составляющие реалии жизни человека. У неё уникальный подход к созданию сво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торый служит попыткой более искреннего понимания человека. Ан-то-ния Сью-зен Бай-етт родилась 24 августа 1936 года и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более двух десятков книг, удостоена множества почётных учёных степеней различ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лауреат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наград и премий. Её роман «Обладать» получил в 1990 году Букеровскую премию. В РК опубликованы корейские переводы таких её произведений как «Обладать», «Ангелы и насекомые» и «Вавилонская башня».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емия имени Пак Кён Ли учреждена в 2011 году. Премия присуждается действующим писателям,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истинные ценности и оказывают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историю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В 2012 году премию получила россий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Людмила Улицка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состоится 28 октября в городе Во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где жила Пак Кён Ли. Сумма денежного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100 млн вон или 87 тыс. долларов.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15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1937 год: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посвященный 80-летию годовщин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Доклад 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с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ли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и бывший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Чжан Вончан.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анный доклад.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о. Сахалин в 1937 г.: особенности выселения и вселения на нов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Дин Ю.И., к.и.н.
Чжан Вончан, РК

Депорт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существленная советскими властями в 1937 г., несомненно нанесла сильный удар п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орейцам пришлось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жизни в совершенно чуждых им условиях Средней Азии, пережить много сложностей и страданий.

Вопрос о депорт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довольно хорошо изучен в 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Такие авторы как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Бугай Николай Федорович, Сон Жанна Григорьевна, Ли Владимир Федорович, Чернолуцкая Елена Николаевна и др. внесли в разработку истории депортации, ее причин и последствий, весомый вклад. История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изучалась отдельно сахалинскими историками 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 Кузиным Анатолием Тимофеевичем, Пашковым Александром Михайловичем, Подпечниковым Владимиром Леонидовичем.

Данная статья ставит своей целью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37 г.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сопутствующих этому переселению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татья основана на документ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рхив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том числе впервые вводимых в научный оборот.

Большинство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было выявлено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работы в архивах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архивный шифр на части из них был утерян, поэтому архивной расшифровки к ним не дается. Копии оригин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будут хранить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архи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 занимал и занимает особое место в российской и со-

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В 1937 г.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контролировал только его северную часть (южная часть от 50-й параллели являлась японским губернаторством Карафутто). Близость к вероятному противнику – Японии, отдаленность и затрудненность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делали осуществление контроля над островом более сложным, чем над други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радилось это и на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1920–1925 гг. Япония, пользуясь хаосом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России после революций 1917 г., оккупировала Северный Сахалин. Не имея военных сил дать отпор японской армии,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вел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о возвращ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добившись этого только с подписанием Пекинского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По условиям договора СССР был также вынужден предоставить японским подданным, компаниям и ассоциациям концессии на эксплуатацию сырьевых богатств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в основном именно на Северном Сахалине (с 1932 г.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составе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Япония, получив право на разработку концессий (в основном – нефтяных и рыболовных) на Северном Сахалине, активно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этим правом. Для работ на концессиях, помимо своих граждан, японские компании активно завозили китайцев и корейцев. Учитывая, что Корея была тогда колонией Японией, а расходы на корейцев в част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были значительно меньше, чем на японцев,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ющих на концессиях было велико.

Согласно справке налоговых ведомств и отдел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йисполко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 янва-

ря 1932 г. проживало 3,2 тыс. корейцев, из них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 3 тыс., 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 и Рыбновском районах – по 0,1 тыс. Однако, цифры эти приближенные, только примерно дающи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ейцев на Северном Сахалине, к тому же не уточняющие гражданство проживающих корейцев – советское или японское. К 1937 г. как мы увидим, их количество существенно уменьшится.

Итак, в сентябре 1937 г.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олучили от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йисполкома следующее предписание:

«На основании 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ктябре месяце должно быть выселено вс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в Казахскую и Узбекскую республики. Вместе с основным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выселяется корей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учителя, агрономы, врачи, а также корейцы коммунисты и комсомольцы.

К пере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е немедленно, с тем, чтобы переселенцы были по окончании всех с ними расчетов в точ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й срок по расписанию отправлены с пароходом в Сучан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и в этих целях для перевозки корейцев-переселенцев.

Корейцам разрешается при переселении брать с собой имущество, хозяйственный инвентарь и живность.

Возмещалось корейцам стоимость оставляемого ими недвижимого имущества, посевов, если таковые есть и по сезону еще не убраны, также стоимость рыболовецких орудий, снастей, принадлежащих им лодок, оставляемых в распоряжение ловец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рядок оплаты за движимое и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 и неубранные посевы оставляемые переселенцами корейцами,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следующи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оспроизведено шествие короля Чончжо к могиле отца принца Садо

В городе Сув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у крепости Хвасон, которая входит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состоялся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крепости Хвасон. Его посетители стали свидетелям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танцами, боев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и музыкой. В их числе «Ячжо» представлено с показом традиционны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объединённых королём Чончжо. Самым зрелищ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стало первое полное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пути короля Чончжо со своей свитой от сеульского дворца Чхандокун до могилы его отца - наследного принца Садо в городе Хвасоне, неподалёку от Сувана. Весь путь составляет 59 км 200 м. Само событие имело место в 1795 году. В королевском шеств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580 человек, 16 групп музыкантов, 690 лошадей.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за три дня фестиваль посетили 750 тыс.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570 тыс. гостей. (RKI)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ые учебники

В РК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ые учебни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школах всех ступеней. С 20 сентября их демонстрация проходит в школах. Изменены не только учебники, но и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этому новыми учеб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ученики 3-4 классов школ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первого класса школ средней ступени (седьмой класс), первого класса школ высшей ступени (десятый класс). Всего показаны 413 учебников и 1.101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твор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у дет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кратило время н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уделив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меющей прямое отношение к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менно с этим уклоном создавались новые учебники. Упрощена программа с первого по шестой класс, что позволит ликвидирова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нятиях. Школ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оведут оценку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книг и учебников, выбрав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е для себя. (RKI)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направят делегации на ассамблею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го союза

Делегации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137-й ассамблеи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го союза (МПС),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с 14 по 18 октябр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в интервью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спикер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По её словам, решение о встрече двух делегаций в рамках ассамбле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они сами. «Россия, как принимающая страна, будет всемер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иалогу. Конфлик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реват самыми тяжёл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для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ира в целом. И по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есь арсена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люб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лощадк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низить накал ситуации, дать импульс политическ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 отметила 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Ли Ён Хо: Пхенья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как объявление войны

Пхенья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ак объявление войн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Нью-Йорке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Ли Ён Хо. «Так как США объявили нашей стране войну, мы имеем полное право принимать контрмеры, в том числе вправе сбива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даже если они не находятся в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ашей страны», — заявил гла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По его словам, Пхенья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се варианты действий. При этом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американ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 перейдет от слов к действиям.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судил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24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Его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действия Севера и обсудили вариант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возможным провокациям.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ообщили, чт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ал указание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 сдержи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Он также дал указание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развивать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на осно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альянса. В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Нак Ён и главы силовых ведомств.

Россия может помочь РК в развитии космоса «Наро»

Роскосмос может помочь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развитии космоса «Наро». Об этом,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заявил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австралийской Аделаиде, где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стронавтический конгресс,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оскосмоса Игорь Комар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артнёры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своего космоса проявили интерес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Центром эксплуатации назем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роме того,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возмож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оссийск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ракетных двигателе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о пилотируемым программам Роскосмоса Сергей Крикалев сообщил,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жет быть размещена российская наземная станция коррекции сигнала системы ГЛОНАСС.

Мун Чжон Ин: Войн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опустить нельзя

Войн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опустить нельзя, даже если допуст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па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льянс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специальный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ун Чжон Ин, выступая в среду на семинаре в Сеуле, который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Фондом будущего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ысказывание Мун Чжон Ина прозвучало после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 готовности Вашингтона к военному варианту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Мун Чжон Ин отметил, что цель военных акций состоит в ликвид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и ядерного арсенала, однако, без переброски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СШ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эта цель вряд ли осуществится. Мун Чжон Ин выразил беспокойство тем, что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могут произойти случайные или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военные столкновения, что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ядерную войну. (RKI)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стори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чало в № 35, 36)

Не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X века доля корейцев в населении юга Приморья росла быстрее остальны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Если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1914 году выходцев из Кореи здесь проживало около 15%, то спустя десятилетие уже свыше 25%. При этом речь идёт только об учтённых мигрантах, реальная их доля была ещё выше — до трети.

«Массовый переход границы корейцами принял угрожающие размеры...»

После 1917 года проживавшие в России корейцы тоже оказались участникам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Тысячи мигрантов, бежавших из оккупированной японцами Кореи, сражались в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ах на стороне большевиков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интервентов, 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оккупировавших и наш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Крас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влекали не только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е и социальные идеи коммунистов, ярко выраженная антияпонск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большевиков была им ещё ближе.

Среди «красных корейцев» оказалось немало националистов, для которых главным была война с Японией и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Однако, это не только укрепляло советское влияние в сред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иморья, но и создавало новые очаги напряжения. К концу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отряды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 на наш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считывали порядка 30 тысяч штыков — естественно не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среди них порой возникали лозунги даже об учреждении на российских землях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и атаманов и полевых командиров «красных корейцев» не раз вспыхивала и жестокая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порой доходившая до открыт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Так, 28 июня 1921 года в городе Свободный (на берегу реки Зей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ошёл настоящий бой между конкурирующими силами «красных корейцев», счет убитым шёл на сотни.

Две революции в нашей стране и многолетняя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вызвавшие массовую эмиграцию русских за границу, не только не прекратили, а ещё более подхлестнули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Ещё в 1919 году японцы жестоко подавили в Корею массовые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их власти. И за несколько следующих лет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и, в уже имевшиеся корейские сёла, бежало свыше 100 тысяч новых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и этом, власти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не только жестоко подавлял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в Корею, но и умело работали 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на наш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читая всех корейцев своими подданными. Для Токио эта задача облегчалась тем, что до 1922 года Владивосток и Хабаровск контролировались япо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В столице Приморья почти пять лет открыто работал специаль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Корей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занимавшийся прояпонской агитацией и организацией лояльной власти в корейских деревнях южнее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лучалось, что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азрывалась двумя центрами притяжения — внутри неё были как активные противники японцев, ориентировавшиеся на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так и сторонники подчинения сильной Японии, которая тогда многим казалась куда более могущественной и развитой, чем Россия, лежавшая в разлухе после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С 1922 года, когда произошло возвращение Приморья в состав единой страны и образования СССР, новые советские власти попытались вести активную социальную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внутр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корейских селах организовывались школы с преподаванием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языке, издавались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на корейском.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это не решало комплекс проблем, связанных с наличием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регионе огромной иностранной диаспоры, которая частично контролировалась с территории откровенно враждебной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Первая советск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26 года показала 167 400 корейце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крае (для сравнения: китайцев по той же переписи в крае было 71 643). Если брать границы современ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о 90 лет назад там каждый десятый житель был корейцем. Но выходцы из Кореи, в основном, селились в Приморье, где они в то время составляли свыше четверти населения. При этом на юге региона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дос-

тигала 60%, а в Посыетском районе, на стыке границ Китая, Кореи и России, даже 89%.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при всём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е большевиков первые мысли у советских властей о массовом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были озвучены ещё в феврале 1923 года на заседа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бюро ЦК РКП(б). Поводом ста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крае японского влияния через корейцев»: сторонники Японии активно влияли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ыборов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в корейских сёлах Приморья.

В те годы столь радикальные меры, как выселение, не стали реальностью, ограничились лишь депортацией из Охотска и Аяна одной тысячи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имевших япон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Однако, всё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прос о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ущ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поднимался регулярно. Так, 17 октября 1925 года Президиум Приморского губисполкома с паникой констатировал, что «массовый переход госграницы корейцами принял угрожающие размеры».

Взрывной рост корейской миграции провоцировал не только политические опасения. «Самовольное в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и явочный порядок занятия ими земель, — докладывали 26 ноября 1926 года в Москву вл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 срывает вся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какого-либо план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земе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как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иморья, так и русского крестьянства...»

«Признать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рас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инципиа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в другие районы СССР было принято задолго до рокового 1937 года. «Признать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рас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из наиболее угрожаемых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пунктов Приморья в Хабаровский округ» — гласил протокол № 368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труда и обороны СССР от 12 апреля 1928 года.

Совет труда и обороны в то время был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который планировал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На 1927 год пришёлся один из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кризисов в непростых отношения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Состоящее сплошь из генерал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отказалось подписать с СССР договор о ненападении, и в Москве всерьёз задумались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войны с Токио. Перспективы пугали: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Японии в то время по праву считались одними из лучших на планете, тогда как оборона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тот момент была даже слабее, чем в 1904 году, — накануне неудачной для нас войны.

Переселение огром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ассматривалось властями СССР именно как один из элементов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ы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юге Приморья у сухопутной границы с «Корейским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м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Решение «о рас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от 12 апреля 1928 год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о за пять лет выселить с юга Приморья примерно половину диаспоры — 87 749 человек.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ят подальше от границ с Японией — на берега Амура, западнее Хабаровска, где для них выделялис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угодья.

Данный план, однако,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депортацию, за два следующих года добровольно переселилось всего 14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Ещё спустя год и так напряжённа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усложнилась радикально: империя самураев резко передвинула свои границы на тысячу километров к Западу.

В 1931 году Япония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открыто захватила всю Маньчжурию — огромную часть Китая, протянувшуюся от Кореи до Монголии и примыкавшую к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границам СССР. Если прежде наш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чти двух с половиной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по рекам Усури и Амур граничил только со слабым и раздробленным тогда Китаем, то с 1931 года обстановка резко изменилась. Отныне вся сухопутная границ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оссии соприкасалась с мощной и неприкрыто агрессивной империей, обладавшей на тот момент первоклассной армией. И в те годы было совершенно неясно, куда дальше устремится внешняя экспансия Японии — нельзя было исключать, что следующей целью стану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земли СССР.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сторик Алексей Волюнец,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был «Хабаровск»

Именно так называется двухпалубный Боинг-747-400, который 23 сентября приземлился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этого момента все широкофюзеляжные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подобного класса появлялись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в единичных случаях, с разрешения федеральных летных властей. Теперь же главные воздушные ворота области с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такие самолеты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 Событие знаковое и символическое. Самолет вылетел из аэропорта Внуково 20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ому исполнилось 72 года. Тогда,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аэропорт мог принимать самолеты с максимальной вместимостью 24 человека, а сейчас мы имеем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авлять на остров почти 500 человек разом, - рассказывает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эропорта Тамара Грачева.

По её словам, регулярно один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самолетов в мире, вмещающий 447 пассажиров (409 в эконом- и 38 в бизнес-классе), начне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с лета 2018 года. Этот вылет - пробный. Зато принимать самолеты-гиганты аэропорт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еперь имеет право хоть каждый день.

Эт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явилась благодар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на котору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о выделено 1,9 млрд рублей. ВПП была усилена и расширена. В ширину она теперь не 50, а 60 метров, а прочность увеличилась до 60 единиц, еще год назад летом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был 43 единицы, а зимой - 49 единиц.

- Сегодняшнее событие - очередной этап по развитию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следующем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 завершением этой работы у нашей области появится достойная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Садовников.

Как рассказыв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рабо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аэропорт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менить порядка 1300 плит на южном участке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который испытывает основные нагрузки от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Кроме этого, будут усилены бетоном несколько стоянок под такие широкофюзеляжные самолеты как Боинг-747.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а установка четырех выходов, которые впоследствии прирастят к зданию будущего аэровокзала. В 2018 году вдоль оси ВПП будет смонтирована светосистема, установят датчики, определяющие степень обледенения ВПП.

Получа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ектара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ной ипотеко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расширило список тех, кто мож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льготный займ. Среди них теперь и облада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ектара, желающие возвести на своих участках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жилье.

Как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требований к «гектарщикам», желающим строить дом на выбранном участке, выдвигается немного. Быть признанными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обладателям гектаров не нужно. Отсутствие

коммуникаций и какой-либ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земле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 главное - до момента оформления земли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ить агентству в залог имеющуюся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едвижимость.

- Нами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ечень правил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екта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елающих взять у нас кредит. По сути, они те же, что и для других заемщиков. Но есть одна особенность: при выдаче льготного кредита мы будем брать в залог имеющиеся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поскольк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на первый период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олько в аренду и взять его в залог невозможно, - разъяснил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Льготы для «гектарщиков» останутся такими же, как для других получателей займа. Для все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креди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под 7%. Для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вои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под 3,5%,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 0%.

В агентстве отметили, спрос н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регионе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За льготным кредитом на возведение дома в агентство обратилось уже около 70 семей.

Раст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паромной линии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Хоккайдо

По сведения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навигации 2017 года морское судно «Пингвин-33» выполнило 30 оборотных рейсов. Перевезено 1300 пассажиров. Это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когда паромное сообщение продолжалось всего два месяца. Выросла и средняя загрузка рейс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15 году работа паромной линии была прекращена из-за нерентабельности. Вскоре главы двух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ов - губернаторы Сахалина и Хоккайдо -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еревозок. В итоге летом 2016 года паромная линия заработала вновь.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еревозок взяло на себя Сахалинское мо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которое привлекло морское судно - катамаран «Пингвин-33».

Важную роль в увеличении потока пассажиров сыграло упрощение 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веденное с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Теперь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могут оформлять многократные краткосрочные визы с непреры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до 30 дне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 рамках состоявшейся 15-16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Повлияло на численность пассажиров начало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с помощью сети Интернет, а также 30-процентное снижение тарифа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введенное с 1 августа. В итоге билет в одну сторону для взрослого стал стоить 7320 рублей, для ребенка 3660.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ое мо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арианты привлечения к работе на линии более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судов,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возок грузов.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 впервые прибыл чартерный авиарейс из Японии

Самолет Bombardier Q400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сегодня утром вылетел из аэропорта Накасибецу префектуры Хоккайдо. На острова Кунашир и Итуруп он доставил 68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которая прибыла на безвизовой основе, - ранее проживавшие на этих землях люди,

а также их дети и внуки, сотрудники японского МИДа, переводчики и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10 префектур Японии.

Примерно в 9:05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воздушное судно приземлилось в аэропорту «Менделеево»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Здесь самолет покинула примерно половина делегации. Оставшаяся часть вылетела на соседний Итуруп.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гости сегодня посетят кладбища, где захоронены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Состоится заупокойные службы. А уже вечером - в 18:40, по распписанию, делегация отправится в обратный путь. Большинство ее участников посещают Курилы в рамках безвизовых обменов уже не первый раз. До этого группы из Японии доставлялись на острова только мор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первого авиарейса на безвизовой основе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на встреч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Москве в конце апреля.

Напомним также, что ранее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отменила визы и для японцев,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на пароме Корсаков - Вакканай - в течение до 72 часов. Последовали ответные меры - для россиян была упрощена процедура оформления визы в Японию. Сроки ее выдачи сократились до 5 дней.

На Сахалине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Росси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ысокой социаль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ипломы 28 сентября им вруч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шла в рамках заседания областной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Цель ежег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 привлечь общественное внимание к важности решения соц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выявить лучшие социаль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практики. К участию в нем приглашаются те предприятия и учреждения, в которых уделя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блюдению трудовых прав работников,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охраны труда и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в 2 номинациях. Оценку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проводила экспертная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союзов,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 категории «За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не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ы» первое место присуждено детскому саду № 23 «Золотой петушок» общеразвивающего вида с приоритетным осуществлением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ознавательноречев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развития дете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а второй позиции - Кировский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т из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номинации «За развитие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ы» диплом победителя вручен ООО «РН-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 Призером стало АО «Охинская ТЭЦ».

Организации, занявшие первые места, номинированы для участия в федеральном этап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Росси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ысокой социаль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올해 한상대회, 10월 25~27일 창원시 열려

한민족 최대 경제교류의 장인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되었다.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는 약 50개국 3,5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가했다.

대회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핑클링,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한상 네트워킹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한상의 밤,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 등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꾸며졌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의 대회를 통해 다져진 한상 네트워킹을 활용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고, 모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모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는 한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전 세계 경제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세션으로 진행된다. 동아시아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는 극동지역 투자 전략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세션'을 비롯해 '4차 산업 세션', '금융 세션', '학술 세션'으로 세분화해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 교류와 참가자 간 네트워크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처음 신설돼 한상 네트워킹 고도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핑클링>은 시간을 늘려 확대 운영한다.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지역별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 참가자들과 어울리며 심도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기업전시회 참가업체 중 사전 선정을 통해 '우리상품 자랑전' 코너를 신설하고, 지역별 연합회 대표 소개 및 청중 개별 PR 시간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의 대회를 거쳐 글로벌 인재 채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한상&청년, Go Together!>는 참여기업과 채용규모를 더욱 늘리고,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 해인 2015년에는 22명의 인턴을 최종 선발한 데 이어 작년에는 36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부터는 대회기간 중 1회 채용에 그치지 않고 연 3회에 걸쳐 채용규모를 확대 모집한다.

현재까지 2기와 3기 모집을 통해 106명의 인턴을 채용했으며, 이번 대회 기간에는 100여 명을 추가로 더 채용했다.

또한, 올해는 <한상&청년, Go Together!>를 전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4기 현장 면접과 특강 및 토크 콘서트,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Be Partner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연사들의 특별 강연도 눈길을 끈다. 이번 대회에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임지훈 카카오 대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한상들을 대상으로 강

연을 펼쳤다.

둘째 날 열리는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에는 조성진 부회장과 임지훈 대표가 연사로 나서 성공 신화를 일궈낸 자신만의 경영 노하우를 전하고, 대회 마지막 날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글로벌 시대와 한상대회'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대회의 말미를 장식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들이 자리한 첨단 산업도시인 창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내외 기업인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상대회가 국내외 동포경제인들에게 '한민족 최고의 비즈니스 장'으로 다시 한 번 각인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장'으로, 명실상부한 한민족 글로벌 경제 네트워킹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재단, 고려인·애니깽 후손 초청 직업연수 성료

22일, 3개월간 일정 마치고 인천재능대서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 수료식 실시 메이크업 전공 연수생들 한국 공인 자격증 취득... 취업에 실질적 도움 기대 수료 후 연수생 커뮤니티 통해 취업 정보 교류 및 지속적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모국서 직업연수를 받은 차세대 고려인들과 멕시코·쿠바 한인들이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거주국으로 돌아간다.

재외동포재단이 차세대 한인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2017 러시아·CIS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가 22일 수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진행된 이번 직업연수에는 35세 미만의 러시아·CIS 지역 차세대 고려인 4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식요리와 헤어, 메이크업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전공 수업 이외에도 한국어수업과 산업체 현장체험, 한국 문화체험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또, 지난달 27일 안산 고려

인마을을 방문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헤어컷과 세치 염색, 메이크업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료식은 22일 오후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연수 참가자 44명과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료식에 앞서 연수 참가자들의 전공 작품을 전시·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연수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한국어로 소개해 자리를 더욱 뜻 깊게 했다.

재단은 이번 연수가 향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 기간 중 취업 계획과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참가자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연수생 커뮤니티를 개설해 취업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연수 기간 동안 일부 학생이 한국

공인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이번 연수가 차세대 한인들의 실력 향상 및 실질적인 취업 준비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하고 차세대 동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단의 직업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이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 10여 명을 초청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2017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는 오는 26일 오산대에서 수료식을 갖고 연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료식에는 연수생 11명과 재외동포재단, 오산대학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폐회사와 연수생 대표의 답사, 연수 영상 감상 순으로 진행된다. 또, 연수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합창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8월 5일의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복잡한 곳이다. 거리나 풍경이 아니라 생각이 복잡해지는 곳이다. 누구나 히로시마라고 하면 '원폭'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원자폭탄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투하되었던 도시 히로시마는 참혹함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이다. 히로시마에서는 이 원폭을 평화의 이미지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당시는 출근 시간이었을 것이고, 장소 또한 시내 중심지여서 희생이 더 컸다. 약 2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군인이 아니었다. 전쟁과는 상관없는 민간인이었다는 점에서 전쟁의 끔찍함과 비참함이 더 두렵게 다가온다.

폭탄이 투하된 8월 6일에는 매년 히로시마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일본 수상부터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모임이다. 2016년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한국인의 희생도 언급했다.

추도식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주변국의 평가가 다르다. 근본적으로 슬픔이 가득한 모임이다. 그런데 감정이 복잡하다. 이 복잡함을 알아야 평화가 온다. 히로시마 원폭 자료관과 평화공원에 갔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다. 많은 방문자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모습으로 히로시마에 와 있었다. 민족과 국적에 따라 생각이 전혀 다를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것이다.

일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의 끔찍함을 돌아보고 평화를 기원하고 있으리라.

어떤 마음에는 복수나 분노가 차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분노와 애국심이 섞여있을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히로시마에 올까?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평화를 기원하겠지만 어떤 이는 원폭이 아니었다면 더 큰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 위안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인 희생자들도 있었다고 하니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도 복잡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떤 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국인들은 춤을 췄을 수도 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하지만 곧 히로시마에서 희생당한 이들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에 얼마나 놀라고 슬프고 서러웠을까? 남의 나라 땅에서 이유 없이 죽어간 영령들의 한이 크게 다가온다.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히로시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에는 한국인 위령비가 있다. 이 위령비는 민단 등에서 모금하여 세운 것이다. 처음에는 평화공원 안에도 세울 수 없었다. 1999년이 되어서야 겨우 지금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었다고 한다.

히로시마의 한국인은 민족의 차별과 함께 원폭 피해자로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하니 고통이 더해진 무게가 힘겹게 다가온다. 한국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원폭 피해자라 말 못하는 아픔이 느껴진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원폭피해자에 대한 시선, 배제가 아프다. 현재까지도 한국 원폭 피해자의 규모를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니 숨어 살아온 삶의 무게가 더 무겁다.

매년 8월 5일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가 열린다. 희생자의 가족, 민단 등에서도 모이지만 점점 일본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위령탑 앞에 고개 숙이고 함께 평화를 꿈꾸고, 이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8월 5일의 히로시마는 아픈 평화다. 히로시마에 갈 일이 있다면 꼭 한국인 위령탑을 찾아보기 바란다. 그 앞에서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 잠깐이라도 머리 숙여 기도하기 바란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4

시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화의 계속)

4. 보기처럼 '-에 비하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노력에 비하면** 성과가 적다.

- (1) _____ 품질이 좋은 거지요.
- (2) _____ 농촌은 인심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 (3) _____ 추운 것도 아니에요.
- (4) _____ 아무것도 아니에요.
- (5) _____ 부족한 게 많아요.

5. 보기처럼 '-(으)르 것도 안/못 되다/없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올 여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나: 여행이랄 것도 못 돼요.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잠깐 쉬다가 왔어요.

- (1) **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신다면서요?
나: _____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양로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말벗이 되어주는 것 밖에 없어요.
- (2) **가:** 손님들께 식사 대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나: _____ 그냥 평소에 먹는 것처럼 준비했을 뿐이에요.
- (3) **가:** 이번에 가져갈 물건이 많다면서요?
나: _____ 상자 몇 개가 다예요.
- (4) **가:** 등산 갈 준비는 다 했어요?
나: _____ 점심 때 먹을 간단한 음식하고 물만 챙기면 되는데요.
- (5) **가:** 그 분에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나: _____ 그저 이름과 사는 주소, 전화번호 정도지요.

읽기 연습 Чтение

※ 아래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민수산 드령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 이방원

단심가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닳이라도 있고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 정몽주

- 1. 시조 『하여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 2. 시조 『단심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 3. 이 두 시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과제 학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1. 다음 '-(기)에 따라(서), -에 대해서, -에 대하여, -에 따르면, -에 의하면, -에 비하면, -(으)르 것도 안/못 되다/없다' 사용하여 문장을 각각 두 개씩 만들어 보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아래 시조 내용을 음미하면서 읊어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남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 황진이

3. 시조의 형식에 맞추어 여러분 자신이 시조를 지어 보세요.

(끝)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Основными экспонатам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на выставке, стали издания и многократные переиздания в Японии знаменитых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писателя по каторжному острову. Сборники научных работ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хрестоматия «Литературный путеводитель, или Сахалинскими дорогами Чехова и не только...» и другие материалы, связанные с Антоном Чеховым и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дополнили уникальную экспозицию, созданную япо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В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выставку специальной книге в переводах славистов Масахиро Кудо и Кадзуя Окада опубликованы работы островных чеховедов Виктории Чудиновой и Анастасии Степаненк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а Елены Иконниковой,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иколая Тарасова, рассказ краеведа Темура Мироманов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его деда и отц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чеховского наследия на Сахалине. Среди иллюстраций представлены совреме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острова, сделанные сотрудником музея Сергеем Кузововы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музеями Сахалина и Хоккайдо еще в мае было закреплено подписа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Тогда и. о. директора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и директор Литературного фонда Хоккайдо Масахиро Кудо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очном проекте стало перв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к плодотво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в Хоккайд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музее пройдут встречи, на которых жители Хоккайдо познакомят с сопутствующими чеховской книге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октябре в них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делегация музея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информиру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стровного музея.

사할린 사냥전문가, 올해 곰 47 마리 퇴치

사할린 사냥전문가들은 가을철을 맞아 곰 47마리를 퇴치했다. 사할린주 산림·수렵경제부 블라지미르 코르네예브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에 퇴치된 곰은 40마리 이하였었다.

올해는 사할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신고되어 사람에게 접근한 사건은 120여 건이 접수되었다. 올해는 강과 숲에 물고기의 유입이 적은데다가 사할린의 산에는 열매와 솔방울의 결실도 부실한 탓으로 보고 있다고 장관은 지적했다. 이는 곰의 자연적인 먹이 상황을 악화시켜 사람들을 향한 곰들의 잦은 습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

단하고 있다.

올해는 곰의 습격으로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첫 사건은 마카로브 구역에, 두 번째는 얼마 전 아나와 구역에서였다. 마지막 사건은 예기치 않은 습격에 총이 아닌 무기로 곰 사살하려 했다가 사살은 못하고 곰이 부상을 입고 도주하여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또 한 사건은 일전에 아르키파기에서 곰이 현지 주민을 습격하여 주민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올해 산림·수렵경제부는 사냥철의 일환으로 곰 사냥에 580개의 허가증을 내주었다. 연간 허가는 630개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곰사냥 허가증은 3650루블이다.

산림·수렵경제부에서는 올해 먹이 부족으로 작년보다 곰의 동면이 늦어지고 주변을 배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47 медведей ликвидировали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е охотоведы

47 медведей отстрелили в этом сезоне сахалинские охотоведы.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орне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ликвидированных особей не достигло 40.

При этом в этом сезо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ьше 120 обращений по поводу выхода медведей к людям, в основном это случалось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Как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в этом году, помимо недостатка рыбы в реках, в лесах на Сахалине — неурожай ягоды и шишки. Это усугубило ситуацию с естественным кормлением медведей и вынудило этих диких зверей чаще выходить к людям.

При этом, как известно, в этом году зафиксировано два смертельных случая встречи медведя и человека. Первый произошел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второй — на днях в Анивском. В последнем случае медведь был ослаблен после ранения дробью, как предполагают охотоведы, в него стреляли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ы из оружия, не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охоты на медведя. Кроме того, животное было ранено своим собратом.

Еще один случай — к счастью, несмертельный —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на днях в Ари-Паги. Там медведь напал на местного жителя,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больнице.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выдало 580 лицензий на отстрел медведя в рамках охотничьих сезонов. При этом лимит на год — 630 лицензий. Лицензия на отстрел медведя в этом году стоит 3650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лесхозе опасаю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пищи медведи позже залягут в спячку и будет больше шатунов, чем в прошлом.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